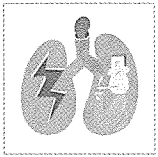


우리 나라 흡연율, 세계 1위

1.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른 담배 소비량



우리 나라에 담배가 처음 소개된 것은 1590년대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에 의해서였으며, 광해군 초에 이르러 담배가 재배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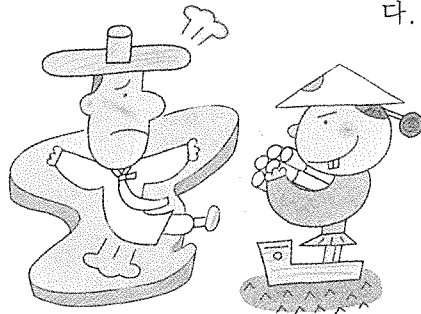
1930년 경부터 켈런(지금의 cigar)이 소개되었으며,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국민 1인당 하루 담배 소비량은 3개비 미만으로 낮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켈런의 대량 생산시설이 확충되고 담배구입이 쉬워짐에 따라 성인남자의 흡연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 1980년대에는 교복 및 두발의 자율화,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경제적인 여유 등으로 미성년자와 젊은 여성층의 흡연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 1인당 하루 담배 소비량은 7개비 이상으로, 30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인구 증가율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 경에는 연 1조 4천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비하게 된다는 계산이며, 국민 1인당 하루 반갑 이상을 흡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 성인 남자 흡연율, 최고치에 달해 있다.

우리 나라 성인 남자 흡연율은 약 68%로,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특히 남자 30대의 흡연율은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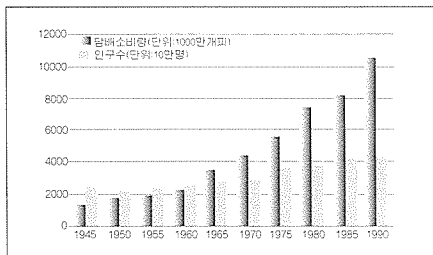


를 상회하고 있어 4명 중 3명이 담배를 피울 정도로 심각하다.

3. 흡연율은 경제발전 수준과 비례한다.

국가간의 성인 남자 흡연율을 비교해 보면, 2위인 중국보다도 우리 나라가 10%나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정도의 흡연율은 아무런 금연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후진국과 같은 상황에서 올라갈 수 있는 흡연율이라고 여겨진다.

(표1) 우리 나라 인구증가와 담배 소비량



선진국으로 갈수록 흡연율은 계속 감소하여 일본 61%, 미국 28%, 스웨덴 24%로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의 흡연율은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하

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미국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1950년대 말에 최고치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흡연율이 최근 우리 나라 사람들의 흡연율과 유사했다. 그러나 미국은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적극적인 금연운동의 결과로 흡연율이 지난 30여년간 매년 1~2%씩 감소하여 오늘날과 같이 흡연율이 낮아졌다.

일본도 10여년 전에는 우리 나라와 흡연율이 비슷했으나 우리 나라보다 10년 앞서 금연운동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흡연율은 우리보다 7~8%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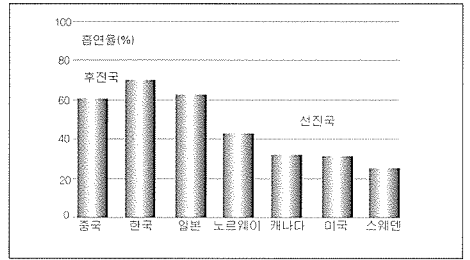
우리 나라도 최근 몇 년동안 성인 남자 중 주로 55세 이상을 중심으로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재 금연운동의 효과를 보아 앞으로 흡연율은 매년 최소한 1%(1년에 약 12만명 정도)씩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10~15년 사이에 성인 남자의 흡연율이 50% 이하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는 흡연자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흡연율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큰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거의 흡연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

속하게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남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40% 이상이 흡연을 한다. 이것은 중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며, 일본 22%, 미국학생 18%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서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없다.

청소년 흡연율도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와 같이

(표 2) 국가별 성인 남자 흡연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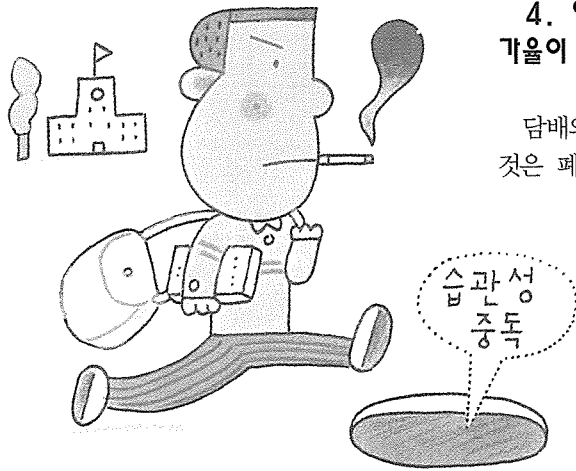


지게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모든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가 아직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연운동의 초점은 청소년들에게 맞추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4. 암 사망 중 폐암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담배와 관련이 가장 깊은 것은 폐암과 후두암이다. 최근 10년간 우리 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을 연도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위암, 간암 및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암 사망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암사망 중 가장 많았던 위암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간암으로 인한 사망은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10여년 전에 비해 1.5배나 늘어났다. 그러나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1980년에 10만명당 5명에서 1992년에는 24명으로 약 5배 정도가 증가하여 모



선진국 수준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외국의 선형적인 예를 보면 청소년 흡연율은 성인 흡연율이 감소한 후에야 비로소 떨어진다.

청소년 시절에 흡연을 시작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상의 피해를 입게 되며, 습관성 중독에도 더 깊게 빠

든 암 사망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자의 경우는 절대수는 남자에 비해 적으나 증가 양상은 남자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내에 폐암이 모든 암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 폐암사망을 보면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특히 높다. 세계적인 여러 역학적 연구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지 대체로 30년이 지나면 폐암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사람의 높은 폐암 사망률은 이들이 30년 전인 35세 때부터 담배를 피운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흡연 시작 연령이 25세 이상이었고 3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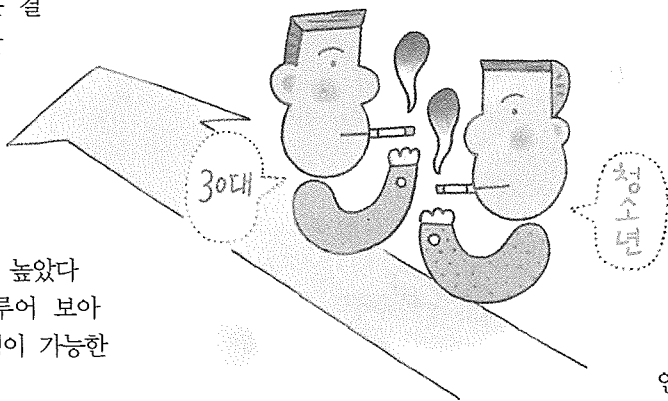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흡연 시작 연령이 20세 이하로 낮아졌고 청소년의 흡연이 예전과 달리 급속히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훨씬 많을 것이며 특히 50대 이후부터 폐암 사망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흡연자가 적

고 폐암사망률도 낮으나 남자에서와 같이 65세 이상에서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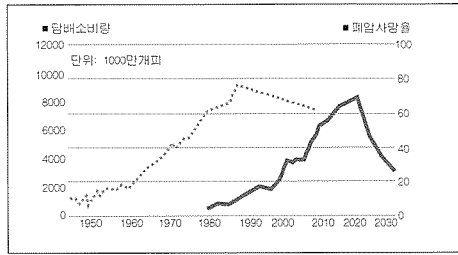
5. 지금의 폐암 사망은 30년 전의 흡연에 의한 결과이다.

폐암 사망률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아직은 우리나라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본격적 흡연 시기가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므로 이론적으로 이 시기로부터 30년이 지나야 비로소 폐암사망률의 현저한 증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1945년부터의 담배 소비량과 1980년 이후 10여년간의 연간 폐암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과거의 담배 소비량이 최근의 폐암 사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담배 소비량이 연간 2천억개비인데 비해 1980년대에는 연간 7천억개비로 약 3배 이상 증

(표3) 한국인의 담배 소비량과 폐암 사망률 추계



가하였으므로 앞으로의 폐암 사망률은 현재보다 최소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0년대 초에 금연을 시작했다고 해도 그동안 담배 소비량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폐암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

만명당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2020년의 우리나라 폐암 사망률은 미국의 73.6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부터라도 우리나라 국민 중 흡연 인구가 연간 1%씩 담배를 끊는다고 가정한다면, 2020년 이후에는 폐암 사망률이 비로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30년이 지나면서는 현재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매년 2% 이상씩 금연율이 높아진다면 폐암으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2]

(자료 : 한국금연운동협의회)